

'화력 폭발' KIA, kt 마운드 '초토화'

손흥민 '골 침묵'

토트넘, 플럼 0대3 완패...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KIA 타이거즈 황대인이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kt와의 시범경기에서 6회 스리런 홈런을 터뜨린 후 선형 주자 서건창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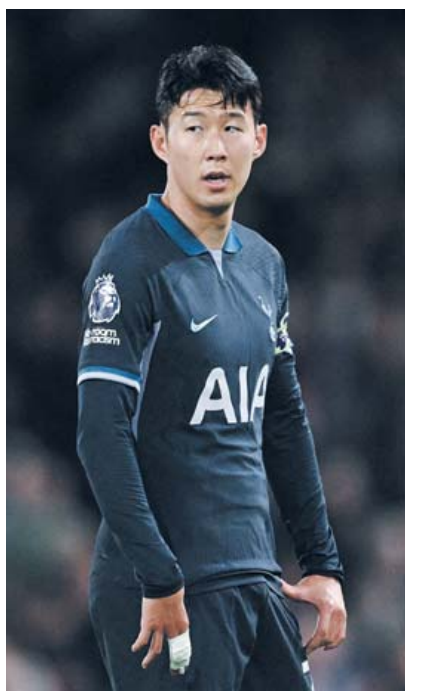
1선발 존재감 크로우, 5이닝 2실점... '출격 준비 끝' 황대인 스리런·김도영 3안타 등 장단 16안타 맹폭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크로우가 시범경기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며 정규시즌 준비를 마쳤다. 크로우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시범경기 8차전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 5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5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의 완벽 투구를 선보인 크로우는 이날도 홈 팬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2명의 타자를 맞아 커터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7개의 공을 던졌고, 직구 최고 구속 151km를 찍었다. 1회를 삼진 2개와 땅볼로 정리한 크로우는 2회에 볼넷 한개를 내줬지만 무안타로 순항했다. 이후 다소 고전한 모습도 있었지만 대량 실점은 하지 않았다. 3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내준 후 1사 23루 상황에서 땅볼 타구로 1점을 허용했다. 크로우의 시범경기 첫 실점이었다. 하지만 황재균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매조지었다. 4회에는 박병호와 로하스의 연속 안타에 이은 땅볼로 한점을 더 내줬다.

만 후속 타자들을 범타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넘겼다. 5회를 삼진 1개와 땅볼 2개 등으로 이닝을 깔끔하게 마친 크로우는 홈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시범경기 두 경기 연속 뛰어난 피칭을 선보인 크로우는 오는 23일 개막되는 정규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에서는 KIA가 14-4로 승리해 크로우가 승리투수가 됐다. 타선에서는 장단 16안타가 터진 가운데 김도영이 4타수 3안타 1타점 맹타를 휘둘렀고, 황대인이 3타점 6회 스리런 홈런, 최형우와 김선빈이 2타점씩 기록했다. 김도영과 고종욱, 소크라테스, 김석환, 서건창도 1타점씩 때리는 등 주전 대부분이 고른 활약을 펼쳤다. KIA는 1회 김도영의 안타에 이은 최형우와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2대 0 앞서나갔다. 3회에는 김선빈의 행운의 안타로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4회에도 상대 실책 2개와 볼넷, 안타 등을 묶어 3점을 추가했다. KIA는 6회 황대인의 스리런 홈런을 포함, 6안타로 대거 7득점에 승부에 쐬기를 박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주흥철 기자

손흥민이 87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하위권의 플럼에 완패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4위 탈환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토트넘은 17일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플럼과의 2023-2024 EPL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크게 졌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최전방에서 부지런히 득점을 노렸지만 기대했던 3경기 연속골을 넣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했다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이 가능한 4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예상 밖 패배로 무산됐다. 토트넘은 5위(승점 53)를 유지했으며 플럼은 12위(승점 38)를 지켰다. 토트넘이 슈팅 수에서 14대 16으로 뒤지는 등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펼친 가운데 손흥민은 때때로 맞이한 득점 기회가 모두 무산돼 아쉬움을 삼켰다. 한편,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모두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이야'라고 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 보여준 노력을 이 경기에서는 쏟



손흥민이 17일 열린 플럼과의 경기에서 팀이 완패를 당하자 아쉬워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 못했다"며 "경기력과 자세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한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건 매우 슬픈 일이다. 팬들에게 이런 경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릎·허벅지 통증' 안세영

전영오픈 2연패 무산

안세영(22·삼성생명)의 전영오픈 2연패가 좌절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7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세계 4위)에게 1-2(10-21 21-19 14-21)로 패했다. 비록 결과는 패배이지만, 안세영은 끈질긴 투지로 야마구치와 치열한 혈투를 펼쳤다. 1세트에서 무거운 몸놀림을 보이며 완패한 안세영은 2세트에서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쳤던 오른쪽 무릎 통증이 도졌다. 안세영은 9-11로 맞은 2세트 휴식 시간 동안 소염진통제로 보이는 연고를 오른쪽 무릎에 발랐다. 그런데도 4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잡은 안세영은 한 점 차로 앞치락뒤치락 하는 접전을 이어갔다. 이어진 19-19에서 두 점을 먼저 쟁겨 경기를 3세트로 끌고 갔다. 3세트에는 허벅지가 문제였다. 안세영은 허벅지를 손으로 짚거나 주먹으로 두들겼다. 다리가 붓는데도 스트로크는 무



안세영이 17일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컵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와 경기 중 통증으로 괴로워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터졌다. 안세영은 10-16에선 잠시 코트 밖 바닥에 앉은 채 허벅지에 간단한 의료 처치를 받기도 했다. 안세영은 체력에서도 바닥을 보이며 점수 차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3세트를 내줬다. /연합뉴스

이예원, 3타차 뒤집고 통산 4승

KLPGA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1타차 우승 2023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삼금왕 이예원이 올해 두 번째 대회인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이예원은 17일 태국 푸켓의 블루캐니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의 성적을 낸 이예원은 2위 최민경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22년 KLPGA 투어 신인왕 이예원은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첫 승을 거뒀고, 8월 두산 위브챔피언십과 10월 하이진으로 챔피언십도 제패했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7위였던 이예원은 11번 홀(파5)까지 3타를 줄이며 선두 경쟁에 합류했다. 11번 홀에서는 세 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 홀 바로 앞에 멈춰 서는 장면을 연출하며 가볍게 버디를 잡았다. 이예원은 경기 막판까지 공동 선두로 팽팽히 맞선 홍정민이 15번 홀(파5) 더블보기로 2타를 잃은 바람에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이예원이 먼저 9언더파로 경기를 끝낸 상황에서 최민경이 16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까지 따라붙었으나 최민경이 17, 18번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예원의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에이스' 김길리 세계선수권 1,500m 금메달

올 시즌 쇼트트랙 여자부 세계랭킹 1위 김길리(성남시청)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21초 19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김길리는 레이스 초반 잠시 후미에서 분위기를 살피다가 이내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윌드, 네덜란드의 하나 데스멧과 치열하게 자리싸움을 했다. 마지막 바퀴 첫 코너에서 레이스를 주도하던 산토스-그리즈윌드가 데스멧에 밀려 살짝 빠듯한 틈을 놓치지 않은 김길리는 인코스를 파고들어 단번에 1위로 올라섰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해 정상에 섰다. 김길리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계주 은메달 1개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이번 대회 목표인 단관왕을 향해 한발짝 다가섰다. /연합뉴스

오타니 뜨자 '와~' 홈런 기대했지만 삼진 2개 아쉬움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대 키움 히어로즈 연습 경기.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1회초 1사 상황에서 삼진아웃을 당하고 있다. 이날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2타수 무안타 2삼진에 그쳤다. 고척돔을 찾은 한국 팬들은 기대했던 시원한 타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타니의 일거수일투족에 아쉬움 섞인 탄성과 환호를 보였다. /연합뉴스

'뼈아픈 극장골'...진격 멈춘 광주

포항 원정 0대1 패배...K리그1 개막 3연승 도전 무산 광주FC의 창단 첫 K리그1 개막 3연승 도전이 어렵게 무산됐다. 광주는 1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뼈아픈 극장골을 내주며(0대1)로 패했다. FC서울과 강원FC를 꺾었던 광주의 연승행진도 멈췄다. 이정효 감독과 박태하 감독이 4-4-2 포메이션으로 맞대결을 펼친 이날 경기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흐름을 이어갔다. 광주가 전반 7분 포항의 공세에 1대1 위기를 맞았으나 골키퍼 김경민의 슈파세이브가 빛났다. 광주는 엄지성과 이희균이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기회를 노렸으나 포항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하자 전반 23분 가브리엘을 투입, 변화를 노렸다. 전반 32분 포항의 기습적인 슈팅을 김경민의 선방으로 막아낸 광주는 전반 45분 수비수 3명을 허문 이희균이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견회를 빼고 허울을 투입했고, 후반 22분 이희균과 최경록을 대신해 오후성과 박태준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후반 40분 아크 정면에서 박태준이 희심의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양팀이 득점없이 경기는 흘러갔고, 후반 추가시간 7분이 주어졌다. 마지막 공세를 펼치던 광주는 오히려 후반 추가시간 3분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든 정재희에게 뼈아픈 골을 내줬다. 정재희의 터치와 관련 핸드볼 유무를 놓고 VCR 판독까지 했지만 끝내 득점으로 인정됐다. 반격에 나선 광주가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후반 추가시간 10분 프리킥으로 롱볼 찬스를 잡았으나 골로 연결되지 않으며 개막 후 첫 패배를 떠안았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끝난 후 '질 만한 경기를 해서 진 것 같다. 앞으로 나부터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경기가 되지 않았다. 포항이 잘 준비한 것 같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경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31일 홈에서 대구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박희중 기자